

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

오상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전반적인 고용사정 호조로 취업자 수 49만 5천 명 증가
- ◎ 연령대별로 보면,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이함
 - 큰 폭의 60대 취업자 수 증가의 주요 원인은 농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 축소임
 - ※ 이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, 농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
 - 20대 취업자 수 및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. 증가하는 업종은 월별로 약간씩 바뀌지만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에서는 꾸준히 증가. 12월에도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에서 크게 증가
 - ※ 제조업 증가의 경우 상용직 비중이 높지만, 음식숙박업의 경우 비상용직의 비중이 높음 → 고용률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긍정적 사실에 일자리 질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
- ◎ 업종별로 보면, 전반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업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확대되고, 감소하는 업종의 취업자 수 감소폭은 축소
 - 12월 농업부문의 취업자 수 감소폭 축소의 주요 원인은 11월에 (날씨로) 지연된 작업의 수행과 예년에 비해 양호한 날씨의 영향이 큼

- ※ 이러한 일시적 기후의 영향은 지속되기 힘들며, 연령별 농가의 인구구성과 기초연금의 효과를 감안할 때 기초연금으로 인한 급격한 농업 취업자 수 감소는 길어도 2~3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
 - ※ 다만 2015년의 농업 취업자 감소에는 나쁜 작황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임
 - 공공행정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는데, 이는 기저효과 및 「인구주택총조사」와 「농어업총조사」의 시행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
 - ※ 2016년 상반기 중에는 증가폭은 축소되겠지만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. 2016년 중반에도 기저효과가 사라지더라도 「경제총조사」(6~7월)의 시행으로 증가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 - 서비스업의 경우,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10만 명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이 특이함(이는 2009년 12월 이후 처음임)
 - ※ 도소매업, 전문과학기술업, 공공행정, 보건복지업에서 주로 증가하였는데, 향후에도 전반적인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
 - 11월에 나쁜 기후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설업과 도소매업의 경우, 12월에 증가로 전환되거나 감소폭이 축소됨. 음식숙박업의 경우, 기저효과로 1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12월에는 이전 수준으로 회귀
- ◎ 고용 개선은 여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,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 특히 30~40대 남성 고용률의 개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
- ※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30~40대 남성의 큰 고용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며, 지속적인 고용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나 보건복지업은 여성이나 남성 고령자를 주로 고용하는 업종임.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대형화의 추세는 여성 고용이 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
- ◎ 종합하면, 12월의 큰 취업자 수 증가에는 전반적인 고용사정 개선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,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

- ※ 30만 명대 초중반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로 다시 회귀할 것으로 판단됨
- ※ 다만 안정적인 취업자 수 증가를 위해서는 2016년에 예견된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